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부활을 기념하는 계란이 준비되었습니다).
- 신약 성경통독을 화요일로 마칩니다. 이번 주 범위는 요한계시록 15-22장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시편 119:56).
- 창립 20주년 (7월 21일) 준비를 위한 성도들의 의견이나 기타 바램을 주보 3면 절취 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예배 상반기 교재가 책자로 발간 되었습니다. 인도자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주일입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시기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주제:하나님과 나, 나와 너의 연결고리 - 십자가 The Cross 일시:2019년 4월 25일(목) ~ 27일(토) 2박 3일 장소: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 뉴질랜드 노회 주관 성 금요일 연합 예배에 여러 분야를 섬겨주신 성도들, 오늘 꽃꽂이로 섬겨주신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Friends of St. David's 라는 단체의 Anzac Day 전야제 행사로 인한 주차와 소음문제로 인해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입교와 세례를 받은 성도들 축하 드립니다. 지속적인 신앙증진으로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유석현, 이은지 성도 가정 이사 했습니다. 15 Market Rd.
-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2019 신앙생활 포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박대희형제

○4월 기도 순서

2부예배

28일 박병민장로

5월5일 손조훈집사

수요일예배

5월1일 장연식집사

5월8일 정옥자권사

청년예배

28일 오혜신자매

5월5일 권우석형제

○4월 예배안내

박병민/김현주

○4월 교회사역

8-12일(월-금): 한주간 새벽기도회

14일(주일): 종려주일

19일(금): 성 금요일연합 예배(노회)

21일(주일): 부활주일 (세례식)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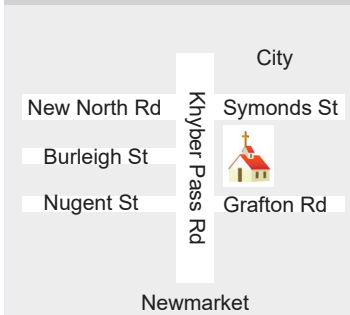
찬 양	-----	주일찬양단
예배로 부름	----- 누가복음24:5-7 -----	인도자
◎찬 송	----- 29장 -----	다같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165장 -----	다같이
대 표 기 도	-----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20:1-12 -----	인도자
찬양대 찬양	-----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나무십자가찬양대 내 주는 살아계시고 -----	나무십자가찬양대
설 교	----- 빈 무덤의 증언 -----	이태한 목사
세 례 식	-----	집례자
찬 송	----- 171장 -----	인도자
헌 금 기 도	-----	다같이
부활축하연주	-----	이현섭형제의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 445장 -----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외부행사로 인한 주차와 소음문제로 인하여 쉽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 태 한

부 목 사 : 이 성 철

부 목 사 : 이 성 훈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2. 말씀이 기초가 되어 이해와 배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3.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심과 교회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잘 성장하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캄보디아, 사순절의 막바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든 동역자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하며 생명나무 공동체가 인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

생명나무센터에 새 생명 둘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생명나무유치원 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또 한 아이는 센터 내 껌뽕스프 생명나무교회에 출석하는 교우의 막내딸인데, Ngo 밀알심장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새로 태어난 이 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보배 롭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날마다 때마다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처소가 되기를, 현재 필요한 센터 내 건축도 속히 허락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가는 꿈에 부푼 청년

한국에 곧 가게 될 꿈에 부풀어 있는 이제 갓 살 여자 청년, 썬 씨잉히응. 제주영락교회 의료선교회 회장 진태일 장로와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의 협력으로 드디어 오는 4월 8일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생명나무장로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큰 헌신을 했던 남선교회 부회장의 딸로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오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온 몸은 피멍이 들고 대퇴부 골절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캄보디아 의료수준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치료되지 못하여 다시금 발생한 고통과 절망은 한창 놀기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 많은 여자 청년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삶의 무게, 그런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취었습니다. 청년을 치료하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1. 청소년, 신학생, 대학생 제자들이 신실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도록.
2. 양과 질적인 확장 그리고 교사 확보와 훈련을 위해.

마태복음 21:12-13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을 목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아름답게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며,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면서 예배를 이끌었을 제사장들과 죄를 담당 시킬 희생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직 성전 바깥뜰에 마련된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을 고르는 서민들과, 참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했을 희생제물이 시끄러운 장터로 변해버린 성전 외전 뜰에서 사서 즉석으로 제사장들에게 인도 되고... 그리고... 또 같은 모습으로 희생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일생을 통해 반복되었을 성전 바깥뜰의 모습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온전히 청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러진 희생제물로 더 이상의 반복되는 온전치 못한 제사를 끊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라고 하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없으셨다고 하심을 보며,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과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깨끗함이 있는지 살펴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면 언젠가는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성전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이루신 지성소에 나아가 그 심장부에서 엎드려 주님의 임재에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분이 거하실 성전으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성전 된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분주함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내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원수인 마귀에게 드나들 문을 열어 놓고 나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할 시기인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내 마음에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해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외에는 어떤 권능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원수인 사탄에게 문을 열어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 창립 20주년 (7월 21일) 준비를 위한 의견을 아래에 써서 제출해주세요.